

天香遍滿 慧心界 色國 長依 甘露門



春日
畫
丁

성도의 벗

호

목차

권두언 (선교부장)	4
예언자의 말씀 (대관장)	8
역사를 창조하는 발걸음	15
7년 후에 본 고국	21
배일문 상 입선시 결정	24
선교부 계보위원회 소식	29
물몬의 딸 재능을 인정받다.	31
선교부장님의 활동	32
대구지부 "가족의 밤 심황"	40
임무를 마친 선교사	41
신앙 간증 도입	43
물몬과 스포츠	44
선교부 재정서기의 말씀	45
대구 지부장 인사	47
배일문 상 당선 시	(3, 25, 28, 33, 34, 37.)

* * * *



표지 설명

선교부장실에 걸려 있는

"박 노수" 화백이 그린 "모란"

褒一文賞 詩 當選作 壹 等

향 수

金 貞姬

이 봐요
난 기도 해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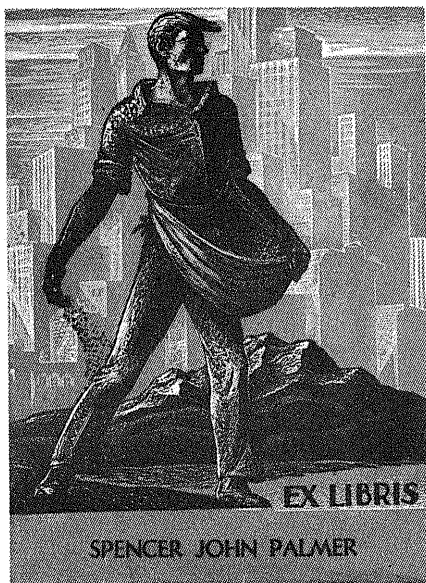
거긴
오늘도 그리움의 나래편
까만눈 소녀의
맑은 꿈이 다리 놓고

태고의 멧을 지닌 학
새하얀 날개 펼쳐
크-게 크-게 등근신 그리는 곳에
은모래 별 흘리우는
먼- 먼- 나의 고향
잊어버린 아쉬움에
하나 가득 감고파.

이 봐요
난 기도 해야겠어요.

卷 頭 言

Editor's Page



세상에는 네가지 種類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部類에 ?

宣敎部長 襄 一 文

제가 열 아홉 살이 되던 해에, 비로서 저는 중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초급대학을 졸업했었지만, 물론 선교사 생활속에서 비로서 성구를 발견했고, 독서의 세계를 발견했던 겁니다. 저의 가슴은 교회에서 발행된 서적을 빠짐없이 공부하겠다는 불같은 요구로 채워졌고, 주님의 뜻을 깊게 공부할 방침으로 개인 복음 도서실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솟구칠 무렵 저는 제가 구입

하는 새책 표지안에 붙칠 저의 표제를 사터 토스엔젤스 백화점
엘 갔습니다. 저는 이 표제에 저의 인생관이 충분히 반영될 그
림을 넣기 위해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 표제의 복사 그림을
성도의 벗에 소개 합니다.

저는 저의 표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결하고 사실적인 것
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만 저에게는 인간과 운명과 인
생에 대한 구세주의 기본적인 설명이 되며 이것들의 비중이 큰
삼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명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빌어 세상에는 다
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밝히셨고, 적어도 사람이 복
음을 듣게 될 때 이 네 부류로 나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나 이를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길게 들지 않았거나 철
저하게 가르쳐 지지 않은 것으로 대개 선한 목자의 말씀을 깨
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보아야 겠읍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씨는 길가에 떨어져 없어 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지라 이내 못된 생각
과 몰려와 진리를 쫓아 냅니다. 이들의 가슴엔 거할 곳이 없
읍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처음 사람들 보다는 잘 이해하는 편
이지만 극히 경박하여 쉽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
음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 드려 간증회에서는 새로 발견한 신앙
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드리지만, 정신 상태는 불안정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깊이 탐구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말일성도의 진정한 의미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다만 몇마디 야기와 단어를 배운 사람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때 죄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떼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며 그 뿌리는 극히 얇게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문정신이 결핍되었다하여 반박당하거나 비판을 받게되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 교회에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 집회에서 재 빠르게 사라집니다.

셋째, 복음을 이해하며 기쁜 마음으로 야기되, 소위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이를 보호할 신앙이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소위 "세상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며, 때때로 이러한 사람들은 치부도 하고 좋은 직업도 갖고 "훌륭한" 사회지위도 얻으며, 세상의 공명과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화와 영광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간절하고 조용한 말씀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게 되어 이들의 생활은 자기중심으로 발전하고 슬사리 영적인 면에서 메말라 버리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금력과 권세와 물질과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는 이들의 욕망은 주체할 수 없게 비대되어 종내 저들의 신앙을 파괴하며 저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저들의 삶은 울리는 낚시와 소리내는 꾀과리가 되고, 저들은 호화토음을 누비며 "굉장한" 인물이 되지만, 과연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넷째,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드려 이해하고 이를 생애

의 보화로 삼으니, 이들의 영혼은 남을 겸손하게 대접한데서 얻어질 황금 수확의 끈진 소망으로 가득차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말로 주께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기도와 성실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씨를 부모가 그 자식을 돌보듯이 보호하되 친구가 배척하고 악마의 세상이 여하한 시험을 시도할지라도 결코 말은 일을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된 권함을 텅빈 세상의 명예라던지 금전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하며 해의 영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살 날을 고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생의 끝날까지 씨를 끊임없이 가꾸고 행하는 사람이며 용감한 전사요, 가지를 다듬는 사람이요, 결국 추수를 맞을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으로,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이같은 사람은 소수로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드려 이를 이해하고 기쁘게 보존하며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압력에 아랑곳없이 가지를 가꾸고 돌보는 일에 손을 쉬지 않아 수천배의 수확을 거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실로 교회안에는 네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豫言者의 말씀

視野를 넓히라

大管長 데이브 오·맥케이

내가 젊은이들과 즐겨 이야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시야를 넓히고 행복한 길로"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행복에의 길은 시야를 넓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야라고 하는 것은 관찰 또는 경험에 의한 어떤 한계를 의미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들의 시야는 눈으로 한정 됩니다. 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시야는 상상력으

로서만이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 및 관찰이 우리들을 즐겁게 하느냐 또는 불행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골에서 산에 올라 즐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산 기슭에 이르러 그 산에 오르는 동안은 그 산의 위가 상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시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위나 산 쪽이 난 길을 해쳐 올라 여기 저기 편 예쁜 꽃이나 관목들을 보고 뒤돌아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첫산 봉우리가 맨 위 봉우리가 아니고 다른 산이 또 겹쳐 있음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산이 더 아름답고 인상적인 경치여서 용감히 또 다음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올라 거기가 최고봉이라 생각해도 거기를 오르고 보면 다시 저편에 산이 있어 우리들의 시야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둑판과 같은 옛 시가 분지가 또 다르게 보입니다. 또 구비진 냇가가 은 띠와 같이 골짜기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서 있을 수가 없이 다시 다음 상봉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래산더 볼프"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한 일삼의 경험입니다.

"산뒤에 산이 내다보고 알프스의 위에 알프스가 솟아 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알프스에 가서 첩첩히 솟아 있는 봉우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고 또는 며칠이고 걸려서 넓혀져가는 시야가 어떠한 것인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 및 영적인 빈민굴에 만

족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향락의 암흑 가운데서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지적 영적인 산에 오트라고 권합니다. 서로 시야를 넓혀서 올라가지 않으렵니까?

우리들이 오르는 최초의 산을 나는 "자유 의 산"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만일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되고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면 거기에는 참된 진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들이 혼돈되어 있는 이유로서 잠재 언젠가는 그들의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유의 산에 서서 주위를 돌아보고 다시금 시야를 넓힙니다. 힘과 자신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립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생활을 최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앞에 다시금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더 험하고 바위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곳을 걸어가면 많은 돌이 굴러와서 우리들은 때때로 굴러 넘어질려는지 모릅니다.

그곳은 쉽게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깨뜨리고 손을 상할려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승리의 산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곳에 올랐을 때 우리들은 다음의 자유의 의식과 같이 중요한 자재의 의식을 얻습니다. 예지의 빛은 거의 볼 수 없는 가운데 사람들은 얼마나 암중모색

하고 있을 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빈민굴에서 빠져나올려고 하지 않고 또한 빠져나와 이 시야의 넓은 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행복의 탐구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쥐는 것은 재로 화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혹자를 이겨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부르짖은 것은 시험의 산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태 4장 10절)

우리는 오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산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더욱 달콤한 행복에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청년 남녀들과 교제하여 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열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노력하며 올라가는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기분대로 들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배우고 같이 마음이 맞아서 도움이 되는 사람 남성은 그들로 하여금 죄선을 다할 수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는 여성을 찾고 남성은 그들로 하여금 "나는 성공한다", "나는 당신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느낌을 주는 여성 그와 같은 여성을 그대는 동반자로 구해야 하며 여성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남성이 당신의 동반자로서 또는 애인으로서의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떤 동물이건 알고 있는 단순한 감각적인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댄스"와 "파티" 및 사교 또는 음악은 모두 목적에 향하는 수단과 불과 합니다. 그들은 다음에 오르는 근면의 산을 향해 있는 것입

니다.

여기서 각자는 그 직업을 선택합니다. 산은 아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는 청년시대에 그 몇 개를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어떠한 곤란에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은 상냥한 것만은 아닙니다. 노력 정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즐거움을 희생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육체적으로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그 자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를 영적으로 느낀 사랑하는 여성 때문에 가정을 건설하려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타인을 축복하고 동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함으로해서 최고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체가 되어 근면의 산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정에서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그가 성공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결국 가족을 사랑하고 기쁘는데에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 있어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이상 가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경험은 근면의 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의 산에 가까이 가니까 알프스는 다시 솟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루고 그림을 사 모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들은 조그마한 집에서 살면서 달력에서 오려낸 그림을 벽에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야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세계

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다시 넓어진 시야를 바라보고 우리들 것인 서쪽으로 기우러지는 태양과 더불어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오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만이나 무기력한 인내심이 없는 술을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육체적 향락을 추구하는 빈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그와 같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인생을 보십시오. 당신은 지혜의 말씀이 진리인 것 또한 그 가치의 증거를 많이 볼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뜨고 인생을, 그 그늘진 곳을 내려다 보십시오. 특히 근면과 감사의 높은 산에서 보십시오.

그러나 다시 전진하십시오. 손에 손을 잡고 최후의 산, 봉사의 산의 상봉에 오르십시오. 우리들이 이 최후의 산에 올라타 터진 시야를 내려다 볼 때 참된 행복은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모순된 듯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도록 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 10장 39절) 우리들의 생활은 타인의 생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타인의 행복에 공헌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 사람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도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 22장 37-40절)

이와 같은 이상은 단지 이론적으로서 실제적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시험해 봄으로써 그것이 실제적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진보의 산에서 내력과 빈민굴에 미끌어 떨어져 육체적인 향락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이상이라고 조소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계시가 주어졌음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들은 봉사의 산에 오르므로서 최고의 행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이 넓은 시야를 행복의 길에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나는 첫째로 "마음의 자유" 둘째로 "극기" 셋째로 "근면 및 가정" 넷째로 "감사" 다섯째로 "봉사" 합하려고 하는 뜻과 능력이 건전한 계단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남자로서 신권을 갖는 우리들이 세상의 모범을 나타내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스페포드姊妹와

제이콥슨姊妹의 韓國訪問



우리 교회 보조조직으로서 처음 조직된 상호부조회를 3대의 대관장님을 모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상호부조회 회장 벨스 에스. 스페포드 자매님과 성도들의 소녀 프로그램의 책임임을 지니고 소녀들의 자질 향상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여자 청년 상호향상회 회장이신 푸로랜스 에스. 제이콥슨 자매님이 예정보다 하루 늦게 지난 5월 30일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당일 저녁에 동부지부에서 각 지부 상호부조회 역원들과 여자 청년 상호회 역원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격려말씀 해주셨습니다. 보조조직의 역원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자매님의 훌륭한 말씀을 듣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여기에 말씀 전부를 실습니다.

스페포드姊妹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밤 제가 말할 수 있을가. 할 정도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수년전 여기에 앉아 계신 김도필 자매님이 신전사업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스페포드 자매님이 업젠가 한번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교회 발전상을 보시고 한국 성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하고 말씀하셨을 때 "김 자매님, 마음으로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나의 생전에 한국을 방문할 가망은 희박합니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보고 또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한없이 기쁩니다. 팔마 선교부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모임이 끝난 후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교회 신문에 스펜서 제이. 팔마 박사가 한국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가장 유능하고 없어서는 아니 될 훌륭한 분을 한국과 같은 조그마한 선교부에 보낼가, 보다 더 훌륭하고 큰 선교부에 보내시지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영감에 차 있는 "샬"이라는 자매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서는 스펜서 제이. 팔마 부장이 한국 선교부장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며 한국 선교부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신 분을 고대하고 있으며 팔마 선교부장님의 지도력을 인정하셔서 보내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니 한국에

있어서 정말 팔마 선교부장님의 지도력의 영향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훌륭한 분의 뒤에는 항상 첩모양처의 내조가 필요한데 팔마 자매야말로 팔마 선교부장님의 사업을 적극 협조해줄 수 있는 훌륭한 자매입니다. 제가 선교부에서 선교부장님의 자녀들이 다같이 한국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앞으로 장성하여 한국말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여기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주신 투스 형제와 자매에게 대한 감사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 투스 형제와 자매야말로 하나님의 전당을 지어주신 공로자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간단히 상호부조회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호부조회의 모임에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상호부조회의 모임을 가질 때는 이 모임이 국제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임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 있어서 어느 여성 단체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조직체가 없으며 우리 상호부조회만이 예언자의 계시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으며 주님의 딸들을 위해서 조직된 것으로 계속 신권 소유자들에 의해서 감독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의 딸들을 위해서 예언자의 계시에 의해서 모여졌다는 것을 알며 진실로 자매 관계를 맺는 조직인 것입니다.

다. 역키 모역 앉아 계시는 자매님들도 대관장님의 주위에 있는 자매님들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뉴질랜드, 이란, 이라크 등 여러나라들의 30만명 쯤 되는 자매님들을 만났고 도라갈 때 동경과 비울빈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곳 한국의 자매님들도 축복받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호부조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사회과학 및 가사등 자매들의 능력을 향상 시키며 서로 도와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그랜트, 스미스, 맥케이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해왔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임명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명하시며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이콥슨姊妹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세계의 반을 돌고서 예정일자를 하루 늦어 도착한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슐트레이크에 계시는 많은 교회 지도자님들로부터 한국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사하는 안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출발하기 1주일 전에 대관장님과 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한국의 성도들에게 관해서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관장회나 우리들 교회 역원들이 멀리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을것 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년 전까지만해도 상향회 지도서가 많은 국어로 번역되고 있지 않았으나 현재 9개국어로 번역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팔마 선교부장님께 여쭙어 보지는 않았지만 멀지 않아서 한국에도 교회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나올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상향회에 대한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 가운데 참을심 있는 활동을 계속해 주신다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이며 상향회를 통해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향회를 통해서 젊은 남녀들이 그들의 취미에 알맞는 로트

쇼를 한다거나 음악제를 가짐으로서 서로 사귄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그들의 재능과 신앙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국이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은 특히 여자 청년 삼향회의 활동에 도우러 온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간증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짓고 있는 그 미소는 제가 다녔던 세계의 많은 나라의 형제 자매들의 참된 사람에 넘친 얼굴들임을 느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되며 늘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땅에 당신의 사업을 수행해 줄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이 선교부에서 주님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 *

(30 페이지 "계보 위원회 소식"의 계속)

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우리의 선조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왔으며 우리의 선조들과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릴 자리를 마련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가족기록서를 작성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가족 기록서를 작성합시다.

七年後에 본 故國

李 英範



편집자 주: "나성지역 한인 지부장 이 영범 협제님은 하기류
가차 지난 6월 27일 7년만에 고국에 돌아와 편집자의
청탁으로 그의 귀국 소감을 투고해 주셨습니다."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갈아 탔을 때 "아이
고 이제는 그리든 고국에 정말 가게 되는구나" 하고 느껴졌든
것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하든 유학생은 10 여
년만에 돌아오는 분이였는데 우리 둘은 한국의 동해안 능선이
처음 나타났을 때 "한국 땅이다!"라고 무의식 중에 고함을 질렀
습니다.

이속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여러가족들과 선교부장님과
또 옛 친우들을 대할 때 무엇이든 말할 수 없든 기쁨을 느끼
게 되었습니다.

약진하는 한국, 발전하는 우리 교회 이것이 저의 첫 인삼
이었습니다. 만 7년만에 보는 서울의 모습은 많이든 변했고
서울 고등학교 한 모퉁이에서 처음 시작했든 우리의 교회는 많
은 발전을 하여 온 것을 잊볼 수 있었습든다.

결부선 열차에 몸을 담아 주위를 돌아볼 때에 벌겋든 산은
푸르게 되고 푸르렀든 산은 나무로 가득히 차서 짙 감명깊은 인

상을 남기여 줍니다.

외국에서 듣기엔 한국이 그렇게 못살고 외국에 나와서는 다시 돌아가 못살것 같이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으나 내가보는 첫 인상은 한국도 발전하고 있으며 보다 밝은 앞날이 언약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곳에 뭉였든 지난번 7월달 첫 주일의 간증회는 퍼 뜻깊었으며 자라난 성도들의 신앙과 수고하고 애써온 여러 형제 자매와 선교사님들의 노력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건실한 발전의 모습을 나성지역의 한국 성도들에게 전해 주고 싶으며 또한 그곳의 성도를 대신하여 이곳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과 사랑의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옛날 희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만물의 수호신이 여러 천사를 몰아놓고 말하기를 나는 땅위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니 내려가서 자세히 관찰하고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후에 천사들은 "땅위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새 등우리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새 등우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큼은 영원히 영속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에 있으나 점차적으로 결

제적 안정을 향해 돌입하고 있습니다.

초가집은 기와 집으로 변한 곳이 많이 있으며 컴컴했던 농촌에 전기가 들어오며 먼지나는 도로는 포장을 하게 되고 부채질하든 주부는 선풍기를 놓고 삽니다.

그러나 확고한 이념이 없는 사람들의 노고는 한낱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새둥우리를 짓는데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 형제 자매님과 나의 사명은 큰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을 받들어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헌신적인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 외로움을 느낄 줄 모르는 형제와 자매를 찾고 있습니다. 또 신앙과 확신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목적이 거룩하고 행동이 검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고 변할 수 없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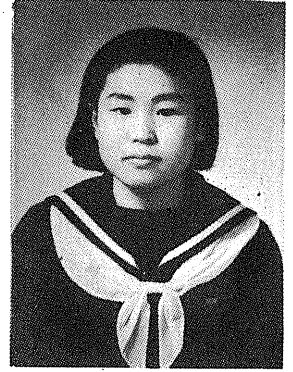
저는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가운데 위대한 이 나라의 일꾼이 많이 배출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이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만 영혼의 구원과 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평화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7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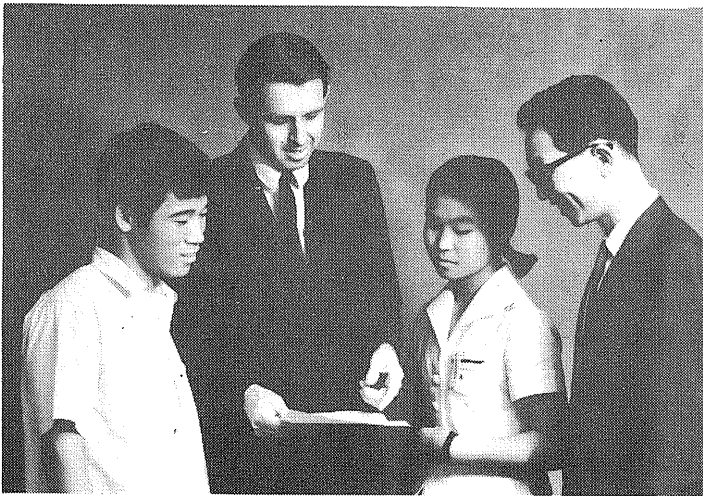
서울에서

褒一文賞 詩 當選作品 決定

지난 5월에 모집했던 제 1회 배일문 상시 모집에 한국 선교부의 각 지부에서 50여 편의 응모 작품 가운데서 엄선한 결과 부산 동구지부 김 정희 자매의 "향수"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에는 삼척지부의 고미람 자매의 "하고 싶은 말"과 대구 지부 김 명조 형제의 "성일"이 2등으로 결정되었으며 3등에는 부산 동구 지부의 허 정도 형제의 "길"과 삼척지부 지영달 형제의 "구원의 찬가" 한인삼 형제의 "나의 방주"가 결정되었습니다.



"성도의 벗" 편집실은 영예의 입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보



내며 당선 작품 모두를 "성도의 벗"에 실기로 했습니다.

褒一文賞 詩 當選作 貳 等

하고싶은 말

고 미랑

맑은 코발트 하늘에
석류알 노을이 진다.
기나긴 역사가 하늘을 스치고
태양은 낮마다
사업을 하는데

그리움의 물결은 소용돌이 치며
인생의 삶에 진미를 얼은 나!

속!

끝없는 허공을 보며
너의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본다.
아픔보다 더한 그리움이
피뿔처럼 진한 데
따뜻한 육체가 무지속에 사라진 너!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째서 여기에?

어디로 갈 것인가? 를

대지에서 낳서 대지로 돌아가고
하루 하루를 돌이켜 볼 때마다
굽은 허리 흰 머리처럼,
세월은 가고 인생은 무상해
그리고
내게 준 보람이 무엇이었느냐고?
캐묻던 너!

너는
육체와 영은 결합된 것이라서,
육체가 죽으면 영도 죽는다고,
그리고
육체가 있어야 영도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숙!
저
빠알간 노을을 보아
우리는
어디서 부터?
어째서 여기에?
어디로 갈 것인가?
틀
궁리하던 이 진리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너!

속!

이 세상 방방 곡곡을 찾아 보아

이 람이 가

너에게 하고픈 말은?

"사람의 육체는 대지에서 나서

대지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생과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영생의 참된 값어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褒一文賞 詩 當選作 貳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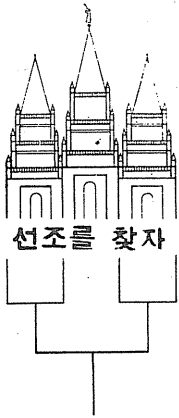
성 일

金 明祚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 종일 교회에서 지내고 싶다.



선교부 계보위원회 소식

"선조를 찾자"는 말일성도의 외침이 산 넘어 물을 건너 날로 메아리쳐 가고 있다. 선조들로부터 족보를 가보로 물려 받아 대대로 물려주며 살아온 우리의 선조들은 스스로 후손인 우리들의 손에 구원 받을 기회를 그때부터 준비해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족보가 한 권 한 권 수집되고 가족 기록서가 선교부 계보 위원 책상에 하나 하나 쌓여가고 있다. 그간 가족 기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들을 발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지부 — 이민관, 이계진, 강춘봉, 박중식, 김종술,
장지숙, 지영달.

서부지부 — 신도일한, 김사원, 김종균, 조규영, 이태문,
김복경, 강은구, 임영옥, 배중식, 김낙균.

신촌지역 — 최종목, 이해동, 권중갑.

현재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선조들도 구원할 수 있는 교리를 가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계보 사업을 통하여 많은 구도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어린 회원들이 부모들의 이해와 관심을 얻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음은 계보 사업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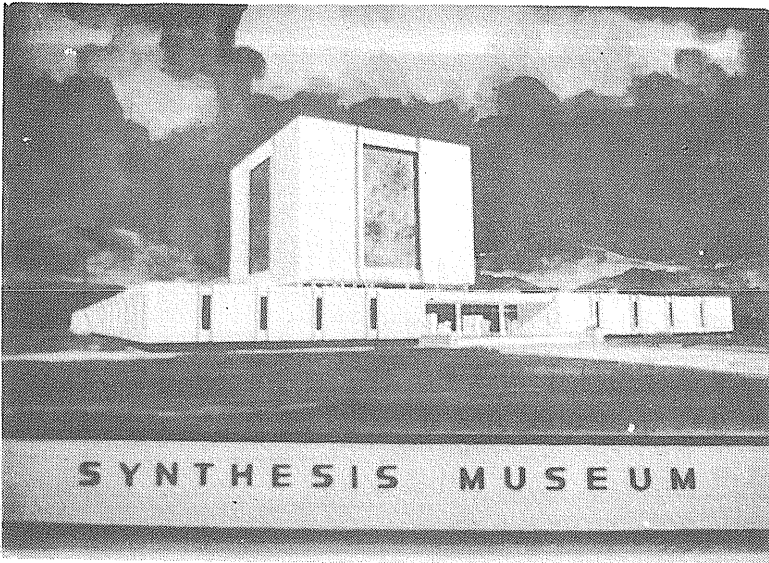
계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가족 기록서를 작성해 오는 회원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서 각 지부 계보 위원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 지부에서는 계보 위원을 보강하고 있는바 서부지부는 완전히 지부 계보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선교부 계보 위원회에 보고된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회장, 김사원 형제. 제1보좌, 황근옥 자매. 제2보좌, 김과영 형제. 서기, 호근희 자매.

뿐만 아니라 삼청지부에서는 이계진 형제가 장초형제를 도와서 일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각 지부 계보 위원들은 각 지부의 사정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이 눈에 띄며, 자기 선조들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가계도"도 작성하도록 할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다음 부터는 직접 가족 기록서 작성 요령을 소개하고 작성된 것을 발표하므로써 더욱 계보 사업을 장려하려 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이 사업을 위해 부단히 활동하므로써 선과 의를 이루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열매를 맺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므로써 우리 선조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여,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명감을 갖고, 희생적인 각오로 헌신해야 할 것이다. 가족 기록서 한장도 작성할 노력도 없이 우리는 우리가 구원 받기를 바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를 구하고 후손을 구하하므로써 하나도 연결되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 페이지에 계속)

몰몬의 딸 재능을 인정받다

삼척지부 최순자 자매는 공보부와 한국 예술 문화 단체 총연합회 주최 1966년도(제5회) 신인 예술상 건축부 차석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최 자매의 영예의 작품은 "국립 종합박물관 계획"으로서 몰몬의 딸의 재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최 자매는 지난번 지방부 주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배경셋트를 그려 미술에 있어서도 그의 놀라운 솜씨를 이미 과시한 바 있습니다. 최 자매님은 이번의 입상을 기해서 더욱 분발하여 보다 훌륭한 작품을 내서 지도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宣敎部長任의 活動



□ 基督教과 東洋傳統社會

美國 「브리감영」 大學校의 宗敎 및 史學 副敎授인 「스펜서 J. 팔머」 博士가 지난 4월 12일 서울 大學校 文理科 大學敎授會議에서 열린 月例 歷史學會에서 「基督教과 東洋傳統社會」라는 題目의 論文發表를 했다.

韓國 歷史와 宗敎 專門家이며 「캘리포니아」 大學校에서 刊行한 「韓美關係史資料」의 編者인 그는 韓國에 있어서의 基督教을 中國에서의 그것과 對比하여, 韓國에서 基督教의 宣敎가 비교적 成功적이었던 이유를 「傳統과의 同一視」 문제를 중심으로 추구했다.

그는 基督教(新敎)가 들어올 당시 韓國의 政治, 社會적 雰圍氣는 基督教과 韓國의 傳統과 同一視되는 데 어떠한 條件이었던지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당시 韓國의 民衆 信仰은 그 概念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이라는 唯一神의 概念이 있었으며 이것은 基督教의 神과

설계 同一視될 수 있었다는 것이

傳統과의 同一視도 基督教의 宣敎에 유리한 데와 그 對내의 境遇가 있다는 주장한 「팔머」 博士는 中國에서의 같이 傳統을 打破하고 革命을 일으키려 할 때에 基督教가 傳統과 同一視될 것이, 日本의 侵略으로 傳統을 固守하려는 社會적 雰圍氣에 있던 韓國에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西歐의 觀念이 東洋 社會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拒否되느냐는 社會적, 政治적, 知적인 復合적 條件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韓國에서는 政治적 社會적 危機가 닥쳐올 때마다 基督教信者의 數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初期의 基督教은 韓國의 民族感情과 연결될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宣敎에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일부 學者들이 迷信의 發達과 낮은 教育水準이 韓國에 있어서 基督教宣敎에 많은 障礙가 되었다고 한 것에 정반대의 의견을 표하고 오히려 그러한 條件들이 基督教宣敎에는 상당히 유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팔머」 博士가 발표한 論文은 앞으로 英國王室 「아시아」 協會 韓國支部의 주선으로 곧 책으로 發刊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지난번 4월 12일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역사학회에서 발표한 선교부장님의 기사가 심동아 6월호에 나와 여기에 전사했습니다.

褒一文賞 詩 當選作 參 等

“ 길 ”

許 政道

검은 눈동자가 투시하는 영원이 때
표표히 홀로서는 끝없는 대학의 광장
이 저녁을 그리움처럼 삼님이 타고

하루는 구멍가게 준비한 골목을 돌아
노상 쓸쓸히 돌아가는데
초월을 불허하는 시간의 연속선상
삶은 곡예사 처럼 재주만 부리고

술한 인고의 그늘아래
후조처럼 살다갈 에뜨랑제
순종의 미덕을 깨달아야 하는 우린
이미 인생의 얘기는 없다

생활의 언덕에 세월이 길으면
저처럼 바람속에 흩어질 나
어찌하여 당신의 참미가 됩니까

정확된 숨결의 사람과
선한 행동의 역사로
찬연히 갈려야 할 머어—나 길위
꽃이 저도 서럽지 않는 고운 황혼속을
이제 내가 간다.

表一文賞 詩 當選作 參 等

구원의 찬가

池 永達

생명의 젖줄 처럼 뻗어나간 줄기에
주렁 주렁 달린 포도송이가
터질 듯
함박, 웃음을 머금은채
알알이 영글어 가고

파아란 하늘가에 풍선마냥
구름이
곡선을 그리며 부풀어 오르는
계절이 오면

홍해를 이등분한 귀세를
유산으로 이어받은 후예가
영롱한 무지개를 본다.

감람잎을 불고 온
비둘기가
홍수 걸힌 소식을 전하던 래고.

무함에서
유함으로 굴러 떨어진 영이, 다시
무함으로 탈바꿈하려
지름길을 찾아 치달려 왔을 때

전승 장군을 맞는 개선문처럼,

영통함 무지개는
중천에 걸려 있었다.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을 지키는
그 사이에서
영원으로 장성해 간, 어제가
송두리채
오늘도 이월되어 오는 순간,

아득한 옛날의 전설을 줍던
아담의 후예는
제단을 쌓아
빛을 임태한 심장에
불을 지핀다.

두개의 보석알에 비친 내일을 보고
하늘을 우렐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십자의 심령이
희열에 찬 구원의 찬가들, 온통
온 누리에 메아리지게 할 때,

(어디쯤 왔을까?)

돌아보며 주춤하는
고달픈 믿음은
한알의 밀알을 찾아
다시
여장을 챙기고,

다소곳이
환희의 언어들을 모아
머업
내일의 하늘에
수를 놓는다.

裴一文賞 詩 當選作 參 等

나의 방주

韓 仁相

빛발이 몰아 친다.

서러운

나의 참가로

바람 소리!

빛줄로 슬혀 오는 망치 소리

외로웠던 그 망치 소리.

뇌성이 호통하여

하늘 파수병을 쫓고

빛빛 번개불이 멍구름을 가르면

태고 같은 홍수가

아우성을 몰아온다.

중얼되는 눈은

물결너머로 세월을 거스려 ...

그리고 찢어진 혀는 나로,

벗을 부르게 한다.

노아—! Noah!

소음과
비웃음에 쫓긴
맘치 소리는,
잠시
깃을 적신
새 새끼의 가슴팍으로
돌아오고.

파열되는 호흡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은 체온
그리고
물 냄새.

밤주가 닥아 온다
절박한 상황으로
천천히, 한치씩 -
지쳐버린 체념을 앞질러.

아 그러나 밤주는
멈추지 않고
도도한 물결을 가르며
저의 길을 가다.

최후의 기력이 산화하여

짐짓

노여움으로 범지려던 나의 전부는

참나에서

스스로 쓸어 안고 —

빛줄기가

오열하는 마음을 내려 갈킨다。

웁한 물,

불어 오르는 깊이를 외면한 채

난 빈손으로

작은 나의 방주를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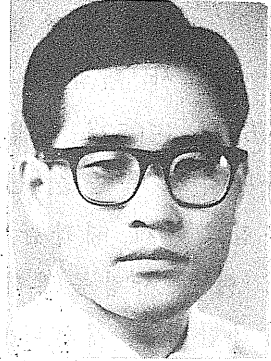
大邱支部 家族의 밤 盛況

지난 6월 29일, 대구 지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족의 밤 순서를 성황리에 끝냈다. 미리 계획된 대로 선교부장님과 한인삼 형제가 참석해 주셨고, 마침 한국을 방문중이시던 나성지역 한인 책임자로 수고하시는 이영범 형제의 참석은 모임을 더욱 활기 있게 했다. 참석 인원은 50여명으로 가족의 밤 출석에서 한국 선교부의 신기록이었고, 그 평균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또한 신 기록이었다니, 자못 자랑스럽다. 이날 간단한 식사 후 개척자들의 생활을 주제로한 기록 영화를 감상했으며, 이 영화에서 물론 개척자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는 크게 감동했다.

특히 영화가 끝난 다음 한인삼 형제와 이영범 형제의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짚막한 얘기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은 배운 바가 많았다는 뒷 얘기. 끝으로 특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임이 지부장단 개편이후 첫번 성공이었다는데 의의가 크다는 것이며 대부분 회원의 부모님이시었던 이 모임의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성도의 성원의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이번 모임을 바탕으로 대구지부장단은 보다 치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업을 준비하며 이를 것이다.

(성도의 벗 대구주재 기자)

任務를마친 宣教師



청운지부 출신 황종섭 형제는 염원하였던 하나님의 종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 6월 15일 명예로운 해임으로 그의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황종섭 형제는 1958년 우리교회에 개종한 이래 이 하나님의 참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지만 정작 황 형제가 군에 입대하여 많은 군인들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안 이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어느 때가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제대를 하고 청운지부에 돌아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 지부들 위해서 지부장님의 부름대로 무슨 일이건 봉사하여 왔으며 동부지부의 한 인상 형제가 선교사로 부름 받음을 계기로 정식으로 그의 오랜 동안의 준비를 선교부장님께 말씀드리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가졌던 것입니다. 1964년 6월 15일 임지인 성동지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 사이도 없이 첫 구도자를 대하였던 것입니다. 약 2개월 후 성동지부 (현 동부지부) 지부장의 부름을 받고 지부행정에 공헌한 바 크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선교사 해임 후에도 계속 동부지부 지부장으로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직 젊소하고 미혼이지만 모든 지부 회원들이 그의 섬실함과 겸손으로 존경의 엽을 아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지부의 인도자로서 주

님의 종으로서 손색이 없는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황 형제가 선교사 해임 후 편집자와의 인터뷰에서 1964년 12월 부터 1965년 12월 까지 지부선교사 였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책임)를 수행하지 못했음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개종시키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임기동안의 특징은 다른 선교사들이 이 지부 저 지부로 옮겨 나가면서 임무를 수행하였지 마는 그가 부름을 받고 마칠 때까지 줄곧 동부지부에서 임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동부지부가 1965년 8월 첫 주 한국에서 처음 건축 계획으로 신축된 용두동 예배당으로 옮긴 것도 그의 임기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용두동 신축 예배당은 특별한 관리와 유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부장으로서의 영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집인 건물관리에도 어느 지부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다방면에 있어서의 선교사 임무를 마치고 그의 첫 보고를 6월달 월례 장로 정월회에 했는데 과연 선교사로서 발전한 형제의 영감에 찬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보고하기를 2년동안의 임기를 마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하나님 사업을 배웠으며 이제야 겨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그동안 더 부지런히 일하였드라며 하는 아쉬움과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는 순간을 갖고 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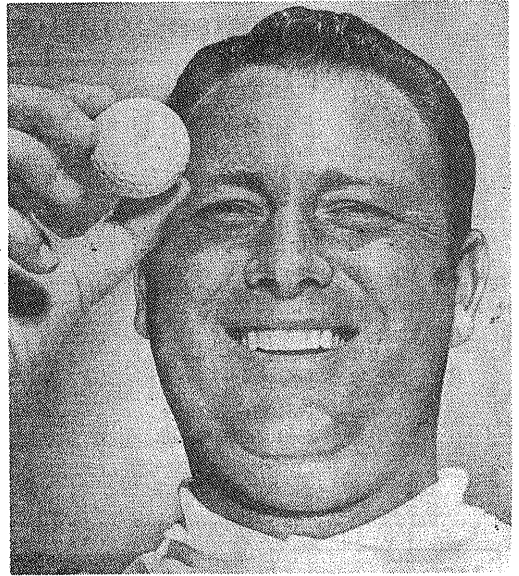
信仰간증 모임

그 지부나 선교부의 발전이 그 지부와 선교부에 속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역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발전시킬려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유혹에 부딪힐 때 그것을 용감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은 신앙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첫주일 금식일에 서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부지부에 모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었던 간증회야말로 참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날 특히 7년만에 고국을 방문한 미국 나성(토스앤젤스)지역 한인 지부 지부장 이영범 형제의 간증은 그의 산 신앙과 미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과 국내의 성도들과의 복음 가운데의 연결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오래된 회원들이 간증하는 기회를 양보하여 최근에 개종한 회원들과 고령자 회원들이 굳건한 그들의 신앙을 간증할 때 정말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같이 하셨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스펜서 제이. 팔마 선교부장님의 유창한 한국말 간증은 정말 그분이 영의 인도자이며 성령의 인도로 간증하였음을 느꼈습니다. 생각컨대 이번 합동 간증모임은 성도들의 신앙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을 자주 갖기를 모든 성도들이 원했습니다.

물론과 스포츠

요즘 골프는 구미 각국을 비롯해서 전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포츠이다. 금번 제 66차 전 미국 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물론인 케스퍼 협제가 우승했다는 소식이 6월 22일자 극동판 심조지 18페이지에 자세히 보도되었다.



(케스퍼 협제)

케스퍼 협제는 상으로 탈 25,000 달러를 어떻게 사용 하겠는가 의 기자 질문에 가장 먼저 교회에 십일조를 바쳐야 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존 밀러 협제)

또한 브리감 영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존 밀러 협제는 전 미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골프계에서 우리 물론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다.

선교부 서기의 말씀

십일조나 교회에 바치는 헌금의 액수를 공개하지를 못합니다마는 성실하게 교회에 십일조와 금식헌금을 바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특히 부산 동구 지부는 지난 수개월동안 한국 선교부의 어느 지부보다도 지부 회원들의 수에 비해 많은 율의 회원들이 십일조를 지불하였으며, 5월 한달 동안은 아주 많은 건축기금을 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산 동구 지부는 생김지가 얼마되지 않으며 한국 선교부에서 가장 적은 지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부의 모든 회원들이 성실하게 십일조와 금식헌금을 지불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며 부산에서 가장 굳센 지부가 되도록 도움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부 재점서기. 프랜시스 메이날드 리-브

* * * *

** 서부지부 "특별 공개 썬미나"

서부지부에서는 미국 나섬 한인 지방부장 이영범 형제님의 귀국을 계기로 이 형제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특별공개 썬미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시일 1966년 7월 17일(일요일) 오후 3시-5시

제목 1. 참다운 신앙에 관하여 3. 상향회화 우리 생활
2. 주일학교와 지부교육 4. 복지 사업의 현실화

물 문 消 息

* 선교부장님의 부인이신 서리 에이취. 팔마 자매님은 지난 6월 28일 드와이트(큰아들)형제의 치료와 복극동 선교부와의 입부 연락차 동경에 가셨다가 7월 2일 무사히 귀경하셨습니다. 팔마 자매님의 말씀은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여행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 신촌지역 주일학교회장 전영수 형제님의 말아들(7세)은 지난 7월 3일 갑자기 사망하여 7월 5일 동부지부에서 장례식을 임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이 형제님을 위로해주며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산 간증을 갖도록 기원합니다.

* 지방부 상향회에서는 7월 14일 7시부터 서울의 각지부 봉사이삭줍기반 회원들이 다같이 모여 전 문교부장관이셨고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선근 박사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팔마선교부장님의 특별 초청으로 하게 된 것이며 이선근 박사님은 선교부장님과 수차의 교관으로 우리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한국의 저명한 학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 축구대회

지방부 상향회 주최 1966년도 한국 지방부 축구 선수권대회를 서울지역 예선대회를 7월 16일(토요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축구장에서 거행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응원상도 준비되어 있다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大邱支部長 인사

어느덧 이해가 절반이 지나고 7월도 중순에 들고보니 정월이 엇그제 같더니만 벌써 기울어져가는 이 한해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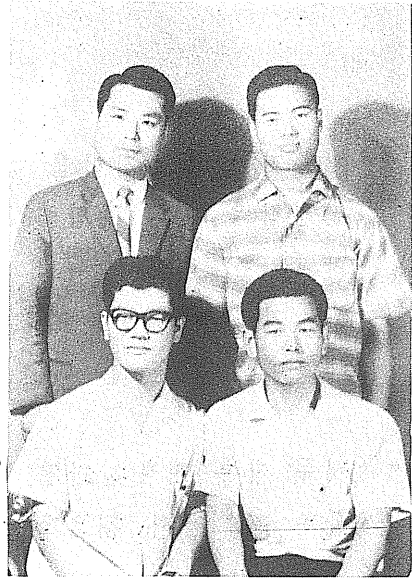
멀리 또 가까이 계시는 한국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성도의 벗을 통하여 대구지부의 새토 부름 받은 지부장단이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축복받은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의 부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토이 된 부족한 대구지부 지부장단을 도와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형제 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해가 다 지나기 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봉사할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위와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시옵기를 기원합니다.



대구 중앙지부 지부장

배 수 열 형제 올림

各支部 消息

- * 서부지부 지부장단은 김종균 지부장님이 성북지역 고문으로 전임함으로 그 후임 지부장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지 부 장 이 해문,	제일보좌 황 충열,
제이보좌 김 나균,	지부서기 조 규영.

- * 대구 지부 지부장단은 도길희 지부장님이 지부교육 담당 지 밤부 평의원이 됨으로서 후임 지부장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습니다.

지 부 장 배 수열,	제일보좌 박 석도,
제이보좌 이 인석,	지부서기 정 정길.

- *부산 동구지부 지부장단 권익현 형제님의 도미로 다음과 같이 지부장단 보좌를 임명했습니다.

지 부 장 김 용일,	제일보좌 송 재현,
제이보좌 최 기덕,	지부서기 이 근혁.

- * 공석이었던 부산지부 지부장단 보좌를 다음과 같이 임명했습니다.

지 부 장 배 영천,	제일보좌 박 정석,
제이보좌 서 현봉,	지부서기 손 진기.

1966년 5, 6월 한국 지방부 집행자 명단

청운 지부

김 정권, 배 대응, 김 봉애, 김 봉실, 홍 성옥,
김 석현, 홍 영애, 장 무열.

동부 지부

이 철용, 김 한규, 이 영희, 김 영숙, 박 진원,
박 귀원, 박 순원, 박 두원, 김 경희, 정 학영,
이 광배, 이 광일, 김 순자, 이 귀희, 윤 호병,
곽 성근.

서부 지부

이 학자, 배 종식, 우 계광, 우 정희, 우 정감,
유 관옥, 김 중혜, 김 신지조, 최 경식, 이 상준,
두 진국,

삼청 지부

이 기호.

신촌 지역

고 풍자, 조 혜옥, 최 양신.

성북 지역

정 찬옥, 이 복순, 이 계권, 이 인선, 이 환선.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 教 部

(住 所 錄)

- 宣 教 本 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番地
淸 雲 支 部 } ⑦ 3995
- 三 淸 支 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淸洞 5番地
⑦ 3596
- 東 部 支 部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134의19
⑨ 1005
- 西 部 支 部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2街58의1
⑦ 1208
- 大邱中央支部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⑧ 6659
- 釜山支部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⑧ 1371
- 東區支部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성 도 의 벗

發行人 스펜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